

“대한민국 위상 세계에 드높인 애국자”

글 편집부 / 사진 이내정



가족들이 기념식 참석자를 맞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영 KCC 명예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탄신 100주년(11월 25일)을 기념해 ‘아산 정주영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아산 백년, 불굴의 개척자 정주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11월 18일에는 서울 예술의전

당에서 기념 음악회가, 23일에는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이, 23~24일 이틀 동안은 같은 장소에서 사진전이 열렸다. 탄신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5시에는 다시 그랜드하얏트호



500여명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축사를 하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참석자들이 설립자의 기념 영상을 보고 있다(왼쪽부터).

텔 그랜드볼룸에서 메인 행사인 탄신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현대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분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염재호 고려대 총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 등 외교사절도 기념식장을 찾았다.

가족 대표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상영 KCC 명예회장,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등 범현대가 구성원들도 자리를 지켰다.

“재벌총수 아니라 부유한 노동자”

기념식 사회는 김동건 아나운서가 맡았고, 정홍원 기념사업회 원장은 기념사에서 “아산은 황무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중후장대형 생산기업을 펼쳤고 가장 먼저 해외시장을 개척한 한국 경제의 선구자이며, 국내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주도하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애국자”로 평가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산 정신이 절실한 때”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도전을 계속해온 아산의 의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좌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시절을 현대에서 보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아산 정주영 회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1세대 벤처기업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며 “아산의 불꽃 튀는 창의력과 끝없는 모험적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취해내는 개척정신은 오

늘날의 벤처 시대와 일맥상통하는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1965년 현대그룹에 입사해 사장과 회장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은 “아산을 오래 모셔서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축사를 하는 게 어색하고 씁쓸하다”면서 “나는 재벌 총수가 아니라 부유한 노동자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이어진 기념 영상에서는 설립자의 생전 사진과 관련 영상,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 있고 건강한 한,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라는 설립자의 육성 등이 차례로 소개됐다.

문인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만큼 감수성이 풍부했던 설립자의 모습도 소개됐다.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자 문학평론가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30년 전 설립자가 ‘잠시나마 시인이 되고 싶어’ 해변시인학교를 찾았던 추억을 회고하며 “시인들과 어울려 인간의 진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나 마음속에 따뜻한 함을 간직하고 소탈한 웃음을 짓던 회장님을 기억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4~5p).

최현수(바리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박정원(소프라노) 한양대 교수가 설립자가 생전에 좋아했던 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선구자’ 등을 부른 기념공연 뒤에는 가족 대표인 정몽구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몽구 회장은 “선친께서는 1915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다”면서 “특히 불모의 땅에서 자동차, 건설, 중공업 등 국가 기간산업을 일구어내신 업적을 되돌아보니 깊은 감회와 더불어 무한한 존경과 그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선친의 뜻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